

강단 떠나는 광주 도시건축대부 전남대 신남수 교수

# “광주 건축물 ‘사람 위한 공간’으로 눈 돌려야”



전남대 신남수 건축학부 교수가 최근 42년 간 같이 해 온 전남대와 작별을 고했다. 1967년 전남대 건축학과에 입학해 조교, 전임강사 등을 거쳐 교수에 이르기까지 그는 일생의 3분의 2를 모교에서 보냈다. 그 동안 등성등성했던 캠퍼스에는 각 대학 건물이 들어섰고, 막걸리 주점과 논밭이 고작이었던 학교 주변은 시끄러운 변화가처럼 변모했으며, 1천 여명에 불과했던 학생 수도 수 배 이상 늘어났다.

“40여 년 간 사용한 연구실을 비우는데, It 트럭 한 대분의 자료를 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보낸 편지부터 강의록까지 꼼꼼히 살펴 보며, 과거를 기억해보니 참 오랜 시간을 여기서 보냈더군요.” 지역 내에서 전공서적을 찾을 수 없었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던 일이며, 젊은 나이에 교수가 돼 우쭐했던 자신을 둘러본 계기가 된 1974년의 네덜란드 정부 초청 유학, 패싸움을 벌였던 제자들을 꺼내오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형사에게 통사정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세어보면 제자가 1천500여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제 분신이기도 한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지역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겠지요.” 신 교수는 학자로서의 ‘기분’을 강조하며,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만족할만한 점수를 맞을 때까지 몇 번이고 시험을 반복해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제자들은 ‘학생 때는 인기 없는 교수, 사회에 나오면 인기 있는 교수’라고 스승님을 감히 평가하고 있다. ‘기분’을 정확히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그 진가를 비로소 체감하기 때문이다. 건축과 도시를 전공한 그는 광주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건축은 기술이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것만도 아니죠.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만 주장하지 말고, 행정기관은 건축에 대한 시간과 자본의 투자

를 늘리며, 전문가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으면 합니다.”

그는 그러한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해 갈 생각이다. 대학에서 강의의 부탁했지만 어렵게 거절하고, 구도심에 조그만 연구실을 낸 것은 이제 ‘가르치는 일’에서 조금 벗어나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려는 그의 오랜 바람에 따른 것이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건축학자이며, 도시문명론자인 루이스 머포드를 존경합니다. 그가 바라본 도시는 바로 창조와 장이죠.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획일적이 아닌 다양한, 내 앞의 이익이나 편리함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익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도시가 광주였으면 합니다.”

신 교수는 오는 19일 전남대 공대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강의를 한 뒤 정년 연구실을 떠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동부소방서 대형 시설 소방 점검



광주동부소방서(배성근 서장)는 최근 광주롯데백화점에 대해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동부소방서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백화점이나 지하철 역사 등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34개 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희망나무, 베트남서 의료 봉사 활동



다문화 가정후원단체인 (사)희망나무(대표 서정성) 회원 5명은 지난 9일 베트남 짜빈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희망나무는 100여명의 주민들을 진료하고 의약품과 돌보기를 제공했다. (희망나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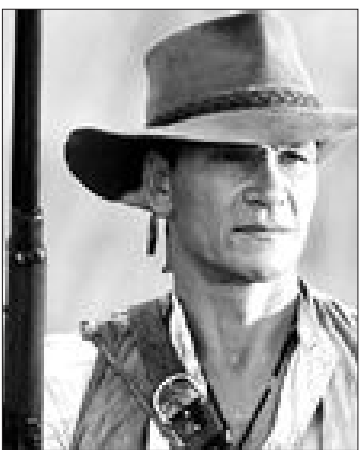
## ‘사랑과 영혼’ 패트릭 스웨이지 떠나다

### 취재팀 투병 별세

영화 ‘더티 댄싱’과 ‘사랑과 영혼’에서 인상깊은 연기를 펼쳤던 배우 패트릭 스웨이지가 1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57세.

스웨이지의 홍보 담당자는 이날 성명에서 “패트릭 스웨이지가 지난 20개월간 병마와 싸웠고 오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이 전했다.

스웨이지는 지난해 3월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강력한 암 극복 의지를 밝히면서 TV드라마 시리즈 ‘더 비스트’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는 투혼을 발휘했으나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했다.



1979년 영화 ‘스케이트 다운’으로 늦게 데뷔한 스웨이지는 1987년 춤을 소재로 한 로맨틱 드라마인 ‘더티 댄싱’(감독 에밀 아달리노)에 출연하면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했다. 여성미 넘치는 댄스 강사로 분한

패트릭 스웨이지는 “누구도 베이비를 벌출 순 없어요”라는 대사로 여성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스웨이지가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은 것은 제리 주커 감독의 ‘사랑과 영혼’(Ghost, 1990)을 통해서다.

스웨이지는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등진 후 연인의 곁을 맴도는 영혼 씬역을 맡아 전 세계 팬의 심금을 또 한번 울렸다. 이 영화로 스웨이지는 골든 글로브 남우주연상 후보에 지명되기도 했다.

이 영화에서 스웨이지가 데미 무어의 뒤에서 함께 도자기를 빚는 장면은 ‘더티 댄싱’에서 스웨이지가 흰색 원피스를 입은 제니퍼 그레이(베 이비 역)를 반짝 안아 드는 장면과 함께 영화 속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연합뉴스

## 권이담 전 목포시장 장학재단 3억 출연

“세계를 가슴에 품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창의적인 학생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싶은 뿐입니다.”

재임기간 받은 봉금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어 화제가 됐던 권이담(전목포과학대 이사장) 前 전남 목포시장이 또 다시 3억원을 장학재단에 추가로 내 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995년 초대 목포시장을 당선됐을 때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했고, 2002년 6월 그 약속을 지키며 ‘아름다운 퇴임’을 해 박수를 받았다.

재임 7년간 받은 수당을 포함한 봉금 일체를 통장에 매달 예치시킨 3억300만원의 목포시에 한남했고, 그 기금으로 ‘홍재장학문화재단’이 설립됐다.

권 전 시장은 15일 “장학재단을 통해 그동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지만, 이자 수입 감소 등으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해 늘 마음이 아왔다”면서 “내년 까지 장학기금을 10억원으로 늘려 수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연한 3억원은 권 전 시장이 전북 과학대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바 교바 모은 봉금과 칠순, 팔순 잔치를 겸 소하게 치르면서 절약한 비용을 합친 것이다.

홍재장학재단은 기본재산 3억30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지난 6년간 목포시내에 거주하는 중, 고, 대학생 155명에게 8천3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 추가 출연으로 기금이 2배로 늘어나 1년에 56명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사이버문화인협회장 1일 명예역장 나서



한국사이버문화인협회 나일회회장(우측에서 두번째)은 15일, 남광주역(역장 성종문) 1일 명예역장으로 나서 승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변협 법률지원단 지부·광주 노인보호기관 협약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단 광주지부(지부장 노강규)는 15일 변호사회관 6층에서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 노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 이영애 “남편에 대해 사랑 이상의 깊은 감정”



최근 미국에서 극비리에 결혼한 배우 이영애가 15일 “행복하다”며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소감을 밝혔다.

이날 오전 연극영화과 박사과정 첫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한양대를 찾은 이영애는 남편 정모 씨에 대해 “누구나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좋다.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며, 사랑 이상의 깊은 감정이 있다”며 “남편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밀 결혼식에 대해

“짧지는 않은 기간 연애를 해왔고 상대가 연애에 중사자가 아니다보니 조용하게 하고 싶었다”며 “아껴주시는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결혼에는 여러방식이 있는 만큼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신다”며 “가정을 이뤘으니 우선은 가정에 충실하는 게 첫 번째”라고 밝혔다.

2세 계획에 대해서는 “나이가 있으니까요”라고 수줍게 웃었다.

/연합뉴스

## 시사민화가 김상택씨 별세

‘김상택 만평’으로 유명했던 김상택 전 중앙일보 화백이 14일 오후 6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5세.

경북 봉화 태생의 김 전 화백은 1977년 상지전문대 미술과를 졸업하고 88년부터 경향신문에 ‘김상택 만평’을 실으면서 신문 만평가의 길로 들어섰다가 99년 중앙일보 화백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인은 지난 2007년 위암수술을 받고 1년 동안 휴식을 취한 뒤 지난해 8월 복귀했지만, 건강이 다시 악화돼 지난달 19일 을 끝으로 만평을 중단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강혜경(53)씨와 1남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오는 17일 오전 6시, ☎ 02-3410-6915 /연합뉴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환축

▲박종채(전남여고 교장)·김자정 씨 장남 수영군 김상기·조영애씨 장녀 희정양=19일(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신인터밸리 4층(메도리스 홀)

▲고무석·여명자씨 장남 영준(바오로)군 윤재선(공천제과 대표)·서덕성씨 장녀 해라(안나)양=20일(일) 낮 12시30분 호남동 성당.

###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16회 동창회(회장 박형택) 월례회=16일(수) 오후 7시 광희네 식당(서구청 맞은편) 062-352-8778.

▲재광 전주상고 동문회(회장 서동철) 월례회=16일(수) 오후 7시 회사(오치동 한전앞) 010-4535-

6688.

▲북성중 제17회 동창회(회장 이웅철) 월례회=17일(목) 오후 7시 무안백낙지(중앙성당 아래) 062-653-9248.

▲대동고 제14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19일(토) 오후 6시 신양파크호텔. 011-629-2730

▲광주송일고 21회 정기월례회=21일(월) 오후 7시 무등정식당(쌍촌동 호남대육교) 062-386-9555, 011-647-1345.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해전 재광 영광군 항우장학회(이사장 이형만) 창립식=25일(금) 오후 6시 북구 동림동 혜천빌

딩 7층 사무실, 강대의 사무국장 010-4192-5182.

▲(사)남도사랑나무=남도사랑나무 이사장 윤기선 핀란드 교육 시찰자 15일 출국. 062-222-7115.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부)자 지원사업=위기지원(출산, 양육, 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http://gjdongfc.familylink.or.kr/)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이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모집**

▲수공예 문화센터 회원 모집=리본공예·비즈공예·한지공예·CA 방과후지도사 전문 자격증, 취미반, 창업반 모집(1대1지도), 비즈공예·리본공예는 무료수강. 수공예협회 서부지구지부(구 송원대학 정문) 062-367-1040, 010-7942-6597.

▲14회 광주 인권영화제 지원활동가 모집=기간(10일~24일까지), 일시(11월19일~22일), 전남대학교 융복합문화관 4층 시청각실. 062-529-7576(www.gjhrff.com)

▲동구 전문봉사단 교육생 모집=동화구연·생활속의 침술·침·부황, 30일까지 교육 후 봉사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동구청 보건소건물 2층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광주시 생활체육아구연협회 사 회인 아구팀 ‘엑스칼리버’ 팀원 모집 =아구에 관심과 자질이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맘보유엔터 살사동호회 회원 수시모집=총장표 3가 초과 앞 대바 디샷 지라, 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골드윈 여성 팝스 중창단 모집 =노래에 관심과 자질이 넘치는 여성으로 공연활동이 가능한 분. 문화예술포럼 ‘누리’ 011-638-0141.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 수시 모집=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생촌동 원불교 송곡, 062-232-7223~4

**부음**

▲김인호씨 별세 성배(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팀장)·홍배·영배(방송대학TV)·선자·민자씨 부친상=

발인 17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11-622-2836.

▲김오심씨 별세 송준찬·주영(I. F.C)씨 품유통)·주학·화란·행랑씨 모친상 윤동화(나주대 교수)·양희철씨 빙모상=발인 17일(목) 무등 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노병자씨 별세 문 훈·희·진·경 아씨 모친상=발인 17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김선동씨 별세 강산·수용·선희·향단·영희씨 부친상=발인 17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이돈길(전 농촌진흥원 국장)씨 별세 성룡(신촌 세브란스병원 서무과장)·성훈(주베트르과장)·미경·

수현씨 부친상 김영기(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씨 부부상=발인 16일(수) 광주 한국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380-3041.

▲곽수임씨 별세 김용길·성길·혜은씨 모친상=발인 16일(수) 무등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박동규씨 별세 중찬·종탁(광주 시청계장)·종욱(장성고 교사)·종표(나주시청)·종록(문화중 행정실장)씨 부친상=발인 16일(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이삼녀씨 별세 윤각중(서강대)·곤중(자영업)·남철(제일은행)·덕중(자영업)씨 모친상=발인 16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 신진국영 5개사들 프리드

15년 연대중앙상조

가업문회 1566-4499